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글 | 김동환 _ 산업자원부 태양광사업단 단장 donghwan@korea.ac.kr

연말이 정신없이 흘러가고 새해가 밝았다. 계속되는 송년회에 이어 이제는 신년 하례회가 학회와 여러 단체에서 개최된다. 바쁜 한해가 숨 가쁘게 다시 시작되는 것을 조금씩 실감한다.

돌아보면 지난 한해도 역시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중에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불미스러운 것도 있었다. 줄기세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꺼져 버린 일이 대표적이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표절논란 등으로 소란스러움이 끊이지 않았다. 큰 사건의 충격파에 가려져 이제는 이공계 기피현상 같이 근본적인 이슈는 더 이상 주목 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말에 대한민국 국가석학으로 선정된 과학자들 명단을 발표했다. ‘노벨 상에 도전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약간 ‘오버’ 한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수한 성과를 낸 과학자들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다. 그 보다도 더 눈에 띄는 일도 몇몇 있었다.

과학기술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인식

뛰어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사람들은 잠시 열광했다가 이내 잊어버린다. 그 연구가 성공되기까지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해 볼 기회도 없다. 과학자들은 언제 나처럼 연구실로 돌아가고 다음 연구에 몰두해야 한다. 그리고 일곱 평 남짓한 연구실에 파묻혀 논문과 씨름하는 동안 자기의 세계가 일곱 평 만하게 줄어드는 것도 모른다.

이제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

은가. 그러나 세상을 타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케팅 노력이 너무나 고리타분하기 때문이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건 어떨까. 연말이 되면 청룡영화상 같은 연예계 행사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학기술상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수상 후보자들이 멋있게 앉아 있고 후보자들이 소개될 때 그 사람의 업적이 동영상으로 비쳐진다. 여러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발표되면 플래시가 터지면서 수상자는 다른 사람들과 포옹과 악수를 나눈 후 단상으로 걸어가 수상 소감을 짤막하게 얘기한다. 가끔 울먹이면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얘기한다.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 석학에 대한 수상식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어떨까. 축제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기술인들과 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좋은 이벤트가 될 텐데 말이다. 더 좋은 방법은 청룡영화상 중간중간에 대한민국 석학을 출연시켜 영화배우들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일 듯하다. 청소년들이 죽자사자 과학 공부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예전에는 서로 만나면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슨 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제는 ‘요즘엔 연구비가 얼마나, 논문은 1년에 몇 편 내냐’를 얘기하게 된다. 과학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 과제가 언제 발표가 되는 지까지 말하고 나면 더 이상 주고받을 얘기도 없다. 어색한 말 몇 마디 더 하려다가 황황히 헤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한다. 그리고 종종 걸음으로 어딘가 열심히 간다. 왜 그리들 바쁜지...

‘종합예술’이 된 한국에서의 연구활동

가끔 여유시간이 있을 때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지를

보면 얼마나 생각 없이 바쁘게 지내는지를 안다. 언젠가 연구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강남에서 회의가 있는 게 생각이 났다. 부랴부랴 차를 몰고 한강을 건너는데 전화가 울린다. '미안하지만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한강은 등 뒤에 있고, 나는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다. 일단 차를 길가에 세웠다. 갑작스럽게 닥친 오후의 자유시간을 어찌할까 한참을 궁리하다가 그냥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냥 안 바쁘게 살면 그만일지 모른다. "연구하는 직업이 내 연구만 하면 되지 무슨 회의다 평가다 쫓아다닐 필요가 있겠나, 결국 본인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아닌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도 했었다.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 아니면 전화도 잘 안 받고 웬만한 회의에는 가지도 않고 저녁 약속은 안 만들면서 1년을 살아 봤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는 거다. 물론 그맘때쯤 연구비도 다 떨어졌다. 그런 공포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열심히 내가 먼저 전화했다. 그리고 다시 바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연구비가 없어지니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아이디어를 들춰보고 실험을 계획했던 것이다. 우연이었는데는 몰라도 결과가 재미있게 나왔다. 매주 대학원생들과의 그룹미팅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다. 논문 쓰는 일도 즐거웠고 '역시 연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 하는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다.

학생 시절에 지도교수님이 해준 얘기는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굳은 표정을 하고 다니면서 힘들다고 불평하던 시절이었다. 지도교수님은 사람 좋은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도 네가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이 제일 좋았다고 느

낄 거다.' 그때 믿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수궁이 간다. 힘들었던 시절이었으나 연구만 생각하면 되었으니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다.

과학자가 있어야 할 제자리 찾게 되길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이공계 박사들이 귀국을 꺼려 그중 반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51.3%를 차지한 대답은 '연구환경 등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였다. 이해가 된다. 미국에서는 연구가 연구일 뿐이지만 한국에서는 종합예술이다 보니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창의적 사고를 하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과학자는 연구에만 신경 쓰면 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이제 우리 나라도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노랫말이 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이 혼란스러웠다. 과학자들이 밖에서 떠도는 것을 마치고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찾아가면 좋겠다. 새해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햇살이 맑은 아침이다.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예감을 안고 연구실로 향한다. **ST**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